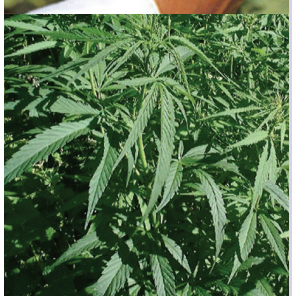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65 광문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PROSECUTION SERVICE 2012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활동 지원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가. 유엔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CND)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위원국은 53개국(임기 4년)이며 마약류 통제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는 심의기구임
-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함

※ 한국은 1991. 5. 위원국으로 피선되었고, 1995. 5. 재선됨
※ 제37차 회의 (1994. 4.)에서 의장국으로 피선되어 활동한 바 있음
※ 2012~2015년까지 위원국 자격 유지 예정

나.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 HONLEA)

- UN 마약위원회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책임자 회의로, ① 아 · 태지역 ② 유럽지역 ③ 중동지역 ④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지역 ⑤ 아프리카지역 회의가 있음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67 광문

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ODC)

- 1997. 11. 1.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와 국제범죄예방센터(CICP)를 통합해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위원회(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ODCCP)를 설치하여 마약류 및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된 협력, 조정센터 마련
- 조직범죄 및 마약류 상호 관련사업에 대한 협력, 조정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DCCP 내 마약류통제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설치 · 운영
- 2002. 10. 1. ODCCP를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로 개명

라.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 1968년 설립된 유엔마약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독립된 준사법기관임
- 마약류의 합법적인 제조, 거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의료용 및 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 파악 및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합법통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고,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각국을 지원함
- 한편, 마약류의 불법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취약성을 적발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함

※ 2000. 9. 4.~ 9. 6.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사무국장 Mr. Herbert Schaepe 방한
※ 2007.10.10.~10.12.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위원 Mr. Brian Watters 외 2명 방한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68 광문

2. 유엔주도 각종 국제협약

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및 1972년 개정의정서

- 이전까지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한 협약
-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및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대마 등을 통제함
- 한국은 1964년 가입(1964. 12. 발효. 개정의정서 1975. 8. 발효)

나.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관리대상물질은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 등이 있음
- 한국은 1978년 가입(1978. 4. 발효)

다.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

- 불법 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988. 12. 19. 채택되어 1990. 11. 11. 발효됨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 등의 원료물질을 통제 · 관리
- 주요내용
  - 자금 세탁 처벌, 불법 수익 몰수, 범죄인인도, 통제배달 기법, 화학물질 통제, 해상 불법거래 방지, 국제우편물 규제 등임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69 광문

- 한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1995. 12. 6.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국내법 정비를 완료했고, 1998. 12. 1. 협약가입을 위한 비준 준비절차를 완료한 후, 동년 12. 28. 협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의 152번째 가입 당사국이 됨

3. 유엔의 마약류 퇴치 프로그램

가. 마약류 퇴치 10개년(UN Decade against Drug Abuse) 선포

- 1990. 2. 유엔에서 마약류 문제에 관한 특별총회를 개최, 1991~2000년을 마약류 퇴치 10개년으로 선포함

나.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제정

- 1987. 12. 유엔총회에서 매년 6. 26.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촉구함

  ※ 한국은 이와 관련 6월 한 달 동안 정부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마약류 퇴치 국민대회, 포스터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함

다. 유엔마약퇴치 친선대사(UNDCP Goodwill Ambassadors)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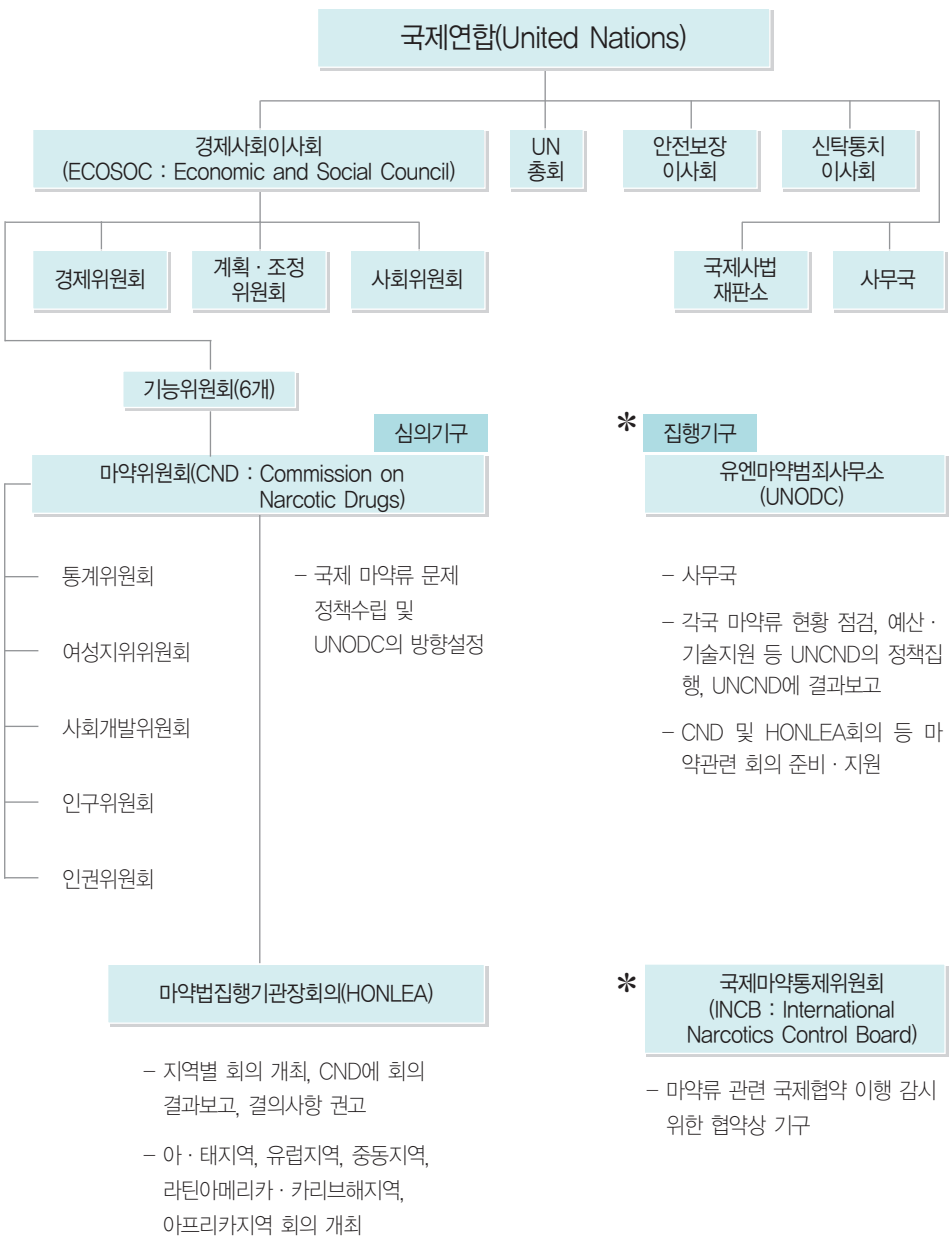
- 1991. 5. 제34차 CND 회의에서 한국이 대사제도 창설 제의함
- 1992. 6. 한국출신의 정트리오(정명화, 정경화, 정명훈)가 초대 대사로 임명되어 1992. 8. 서울에서 대사활동을 시작, 로마,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70 광문

- 현재 유엔마약퇴치 홍보대사로는 멕시코출신 미NBA 농구스타 Eduardo Najera, 일본 축구스타 Hidetoshi Nakata, 브라질출신 미NBA 농구스타 Nene Hilario,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미NBA 농구스타 Vlade Divac, 이란의 축구전설 Khodadad Azizi, 그리고 일본 대중가수 Tetsuya Komuro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임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71 광문

국제연합 마약류 관련 기구표



제2절 국제협력회의 개최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 · 운영

-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서울 주재 각국 외국대사관을 회원으로 1989년 4월 첫 회의 이후 분기별로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회원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영국,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등 총 24개국임(2012년도 몽골 신규 가입)
- 2012년도 제22차 확대회의는 2012. 9. 12. ~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4개국,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 WCO(세계관세기구),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CPS(콜롬보플랜사무국) 등 5개 국제기구 등 국내외 총 200여 명의 마약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현황, 불법 마약류 공급차단, 국제공조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제22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73 광문

- 분기별 ADLOMICO는 2012년 1/4분기 및 4/4분기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한 외국대사관 마약관계관은 물론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등 국내 유관기관의 마약관계관 등 약 50여 명이 각 참석한 가운데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 및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마약퇴치 지원사업 활동 등을 소개하고, 국제공조강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제3절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운영

1. 아시아 · 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은 대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회원국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 대응,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간 국제협력체로서 현재 9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

APICC

〈APICC로고〉

※ 로고 안의 지구 모형은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을 표시
지구 뒤에 있는 문양은 방패이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방패의 색깔은 APICC 회원국 상호 간에 소속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회원국 국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색을 삽입

2. 신설배경

- 초국가 범죄(Transnational Crime)인 마약류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지난 20여 년간 대검찰청이 주관하여 개최한 마약퇴치국제회의(ADLOMICO)와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ASEAN Project)[1] 등 국제협력 분야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부서 신설 필요

1) 제4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참조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75 광문

3. 아시아 · 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 출범식 · 정기총회

- 2012년 9월 7일, 대검찰청 마약과 內 APICC 사무국에서 6개 회원국(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주한 외교사절단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국내유관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ICC 출범식을 개최
- 2012년 9월 11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원국 마약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필리핀 마약청장, 캄보디아 · 브루나이 마약청 부청장 등) 참석한 가운데 회원국간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보안성 향상 방안, 회원국간 공조수사 방식 표준화 및 실무자간 워크샵 개최 추진 등을 논의하였음
- 모든 참가국들이 APICC의 출범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였으며, 한국 검찰의 선도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마약청정국인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APICC 출범식】

【제1차 APICC 정기총회】

4. APICC 사무국 파견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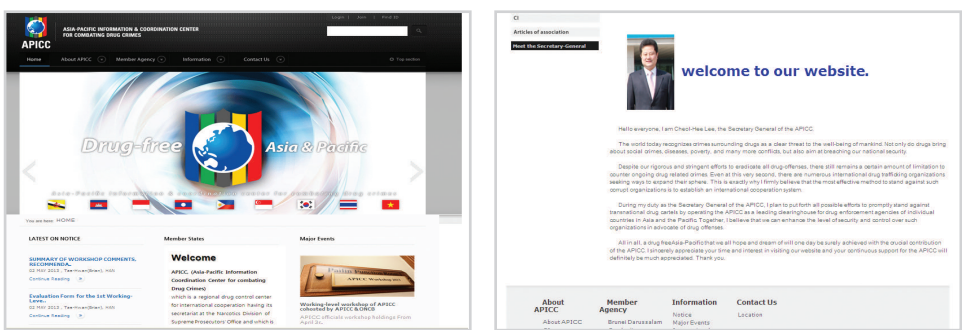
- 회원국간 마약류 범죄정보 수집 및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공조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APICC 지원사업을 수행할 파견근무자 1명을 회원국으로부터 추천 · 선정
- 2012년 8월부터 12월말까지(5개월) 대검찰청 마약과 內에 있는 APICC 사무국에서 근무한 Mr. APIKIT CH. ROJPRASER(태국 마약청 마약원료물질 관리과장)은 APICC 최초 파견관으로서 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

【파견관 Mr. APIKIT의 업무 장면】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77 광문

5. APICC 웹사이트 개설

-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형식적인 공조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APICC 전용 웹사이트(www.apicc.info) 개설
- 회원국별로 웹사이트 책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마약관련 최신 자료 · 각국 법령 · 공조 수사 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음



【APICC 홈페이지 사진】

6. APICC 회원국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 메콩강 국경연락사무소(BLO) 마약통제 역량강화 프로젝트
  - APICC 사무국은 2012. 11. 12. ~ 12. 14.(33일)까지 태국 · 라오스 · 캄보디아 국경연락사무소(BLO)에 장비지원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단속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음
  - 각국 BLO에 감시용 모터보트, 야간 투시경, 무전기 등 단속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함
  - APICC 창설 후 첫 국제 지원 사업으로서 회원국들에게 APICC의 존재감 부각시키고, 메콩강 접경국가 BLO 간 상호 정보교환 활성화 및 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음

【워크숍 및 장비 인도식】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79 광문

7. APICC 창설 의의 및 기대효과

- 회원국 전용 홈페이지 및 회원국 파견 직원의 합동근무를 통한 실질적 수사공조체제 실현
- 기존 ADLOMICO,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다져 온 국제협력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트워크와 국제협력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
- APICC 사무국에 국제 지원사업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원국 내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

제4절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1. 아세안 프로젝트

●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아세안 회원국 전원의 승인을 받아 아세안 사무국에 유보되어 있는 한 · 아세안 협력기금을 이용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마약퇴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2007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2008년 베트남 · 캄보디아, 2009년 필리핀, 2010년 인도네시아,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아세안 프로젝트 지원지역】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은 태국 등 10개국, 인구 5억8천만 명, GDP 7,000억 달러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81 광문

2. 추진 배경

● 국내 마약류 사범 동향 변화

– 그동안 마약류 사범 퇴치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 밀조조직은 거의 궤멸되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마약거래 조직은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국제거래의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마약의 간접적 공급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현행 수사시스템은 종전의 투약자 진술을 기초로 한 국내 상선추적수사 기법에만 주로 의지함으로써 국제거래 조직에 대한 근본적 척결에 한계를 보여 왔음

– 위와 같은 마약류 사범 동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생산 · 공급지의 정보를 취득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거래 조직의 배후를 척결함으로써 국제거래 조직이 한국을 마약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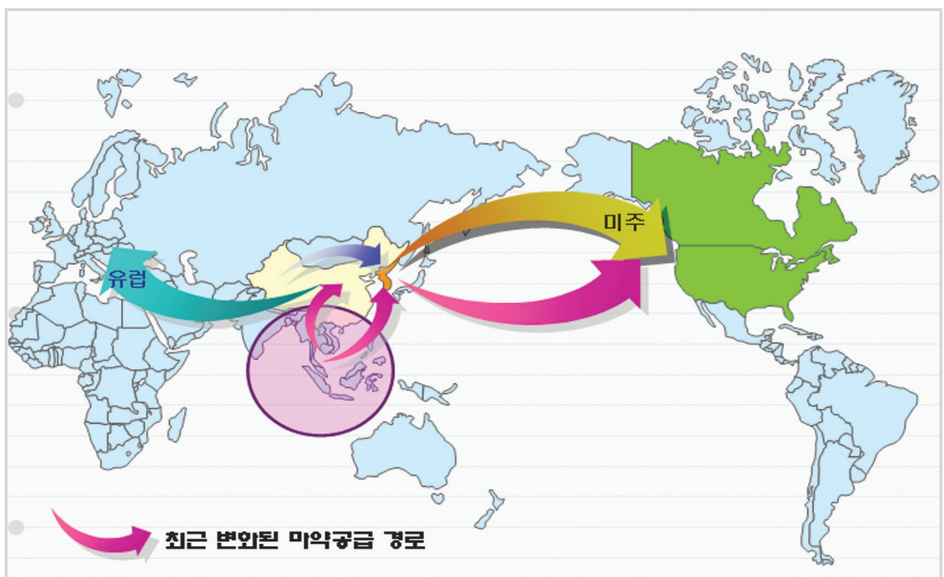
● 국제 주종 마약류 생산 · 소비 동향 및 공급경로 변화

– 주종 마약류

: 아편, 헤로인 ⇨ 필로폰

– 마약류 공급경로

: 중국 – 한국 – 미주 · 유럽 ⇨ 동남아 – 한 · 중 – 미주 · 유럽



【최근 마약류 공급경로 변화】

-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각국의 협조 하에 헤로인 원료 물질인 양귀비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양귀비를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대대적 성공을 거두었음
- 이에 따라 국제 마약거래 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편 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그동안 필로폰 최대 생산지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 최근 필로폰 밀조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2004년 이후 중국 내 필로폰 제조책들이 비교적 필로폰 단속 역량이 미약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부근,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생산 및 공급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필로폰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한층 농후하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성 긴요*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83 광문

3.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 사업목적

- 아세안 3개국(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 싱가폴) 마약통제기관들과의 마약통제기법 공유 및 마약단속, 마약감식, 세관검색 등 마약통제와 관련된 각 분야별 국내초청교육을 통해 해당국의 마약공급 및 소비 억제 능력 기반 마련
- 마약류 생산과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 강화

나. 추진실적

- 아세안 3개국 순회 마약통제기법 공유 워크샵 개최
  - 대검찰청은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출장단을 구성하여 2012. 4. 2. ~ 4. 9. 동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을 순회하며 각 국 마약단속기관(NCB, RMP, CNB) 관계자들과 『선진 마약통제시스템 공유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 동 워크샵에서 한국과 아세안 3개국 관계자들은 자국의 마약통제시스템, 마약감식시스템, 공항 · 항만 검색시스템, 마약류 예방 · 재활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토의하며 상호 정보를 공유하였음

【한 · 싱가포르 워크샵 개최】

【한 · 말레이시아 워크샵 개최】

Brunei, Korea join hands to combat drug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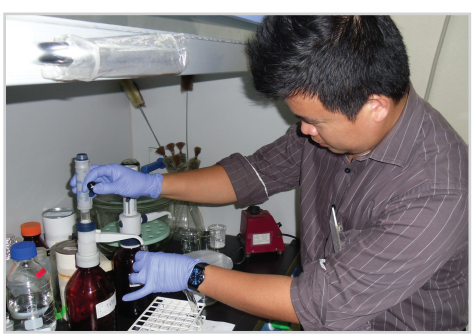
【한 · 브루나이 워크샵 개최내용이 현지 신문(1면)에 비중있게 게재됨】

- 아세안 3개국 마약관계관 한국 초청 교육
  - 브루나이 마약청(BKN), 말레이시아 경찰청(RMP), 싱가폴 마약청(CNB) 소속 마약관계관 총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2. 7. 1. ~ 7. 7. 동안 대검찰청, 인천공항세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습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음

【각 기관 견학 방문】

● 아세안 3개국 마약감식관 한국 초청 교육

- 브루나이 마약청(BKN), 말레이시아 경찰청(RMP), 싱가폴 마약청(CNB) 소속 마약감식관 총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검찰의 선진 마약감식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2. 7. 1. ~ 7. 21. 동안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및 부산지검 마약감식실에서 3개국 마약감식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감식, 마약류 지문감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술을 공유하였음



【마약감식 기술전수】

● 아세안 3개국 세관실무자 한국 초청 교육

- 브루나이 마약청(BKN), 말레이시아 경찰청(RMP), 싱가폴 마약청(CNB) 소속 세관실무자 총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세관의 선진 마약검색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2. 8. 26. ~ 9. 1. 동안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세관탐지견훈련센터, 인천공항세관 등에서 3개국 세관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정보 수집기법, 여행자 동태관찰 및 인터뷰기법, 세관 과학검색장비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국의 세관검색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세관실무자 초청교육】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87 광문

제5절 2012년 필리핀 마약퇴치 국제협력사업

1. 사업 배경

- 2009년 대검찰청 마약과는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검찰마약수사관 2명을 필리핀으로 파견하여 8개월간 현지에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 2012년도에도 대검찰청은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을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의 명칭을 '2012 SPO and PDEA(Strengthening Programs On Prevention of illicit Drugs through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and Activities)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함

2. 사업 내용

-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1) 2012. 6.경부터 10.경까지 필리핀 Muntinlupa, Tarlac, Cebu, Baguio, Quezon 등지에서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 각 지역 시장 및 고문변호사, 학교장, PDEA 청장 및 각 부서장, 공무원, 교사, 학생, 지역 주민 등 약 3,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 전개

2) 캠페인 개최 결과

Muntinlupa 등 총 5개 지역에서 연인원 3,150여명 이상의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의 폐해를 적극 인식시켜 마약퇴치 홍보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함

●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워크샵 개최

- 2012. 6. 20. 필리핀 마닐라 소재 두짓타니호텔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 한국의 마약 통제 시스템과 APICC, 한국 검찰의 마약 감식시스템, 한국 검찰의 마약수사 정보시스템, 한국의 마약류사범 재활시스템 등을 필리핀 마약청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양국의 마약통제시스템 공유를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음

【워크샵 개최】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89 광문

● 필리핀 마약관계관 및 감식요원 초청 교육

- 2012. 7. 2. ~ 7. 6. 필리핀 마약관계관 4명을 한국으로 초청,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한국의 마약관련기관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 및 관련정보를 공유함

- 2012. 9. 3. ~ 10. 31. 필리핀 마약감식관 2명을 한국으로 초청,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수를 통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감식기법을 전수

【마약감식기법 전수】

● 필리핀 마약관계관 APICC 창립 총회 및 ADLOMICO 초청

- 2012. 9. 11.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APICC 창립총회에서는 필리핀 마약청장 등 회원국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국 마약범죄 실태 및 동향, APICC 회원국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APICC 창립총회 참석】

- 2012. 9. 12. ~ 14.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2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는 필리핀 마약청장, 정보수사과장,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가, 각국의 마약류 동향, 마약원료물질 통제방안, 국제공조수사 강화방안 등 논의

【제22차 아드로미코 참석】

● 수사장비 인도식 거행 및 사업종료식 개최

- 대검찰청은 필리핀 마약통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리핀 마약청에 컴퓨터, 수사차량, 비디오 감시장비, 휴대폰 분석장비, 컴퓨터 서버 등 3차에 걸쳐 수사장비를 지원하였고 2012. 10. 26. 필리핀 마약청에서 2012년도 필리핀 마약퇴치 국제협력사업 종료식과 더불어 수사장비 인도식을 거행하였음
- 필리핀 측은 한국대표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한국이 2009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필리핀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함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91 광문

【사업종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제6절 2012년도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1. 제17차 아 · 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 일본 경찰청(총기약물대책과) 주관으로 2012. 2. 14. ~ 2. 16.까지 3일간 일본 동경 소재 Mita Kyoyo Kaigisho 및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개최되었고, 27개국, 2개 국제기구의 마약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밀수 퇴치 현황 및 국제 공조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특히 제17차 회의에서는 1) 서아프리카 마약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2) 최근동향 및 ATS 확산 대책이 주요 의제였음
-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4명)은 발표를 통해 한국의 마약류 동향 소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나이지리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 소개,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립총회개최 등 발표

【제17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93 광문

2. 극동지역 국제마약회의(IDEC)

- 미국 마약청(DEA) 주관으로 2012. 4. 23. ~ 25.까지 3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상반기 회의에서는 1) 서아프리카인 관련 마약 밀수 사례 2) 이란인 관련 마약 밀수 사례 증가에 따른 정보 교류 3) 참가국별 수사 중인 사건 및 피의자에 대한 공조 방안 논의 등이 주요 의제였으며, 우리 대표단(수원지검 검사 등 2명)은 국내 마약류 동향 발표 및 제22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홍보를 통해 참가대표단과 정보 공유는 물론 국제공조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또한 2012. 12. 5. ~ 6.까지 2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하반기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마약수사관)은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필리핀-괌 루트를 이용한 한국인 밀수사범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들의 소재파악 및 국내송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마약류 밀수 단속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정보교환 채널 확대에 주력함

【2012년 하반기 IDEC 회의】

3. 제55차 유엔마약위원회(CND) 회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주관으로 2012. 3. 12. ~ 3. 16.까지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 비엔나 인터내셔널센터(VIC)에서 개최된 제55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주요 의제는 1)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지침 2) 마약통제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 상황 3) 마약대처노력과 공동책임원칙,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원료물질 전용방지 대책에 관한 원탁(주제)토론 4) 세계 마약문제 퇴치를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으로의 국제협력에 관한 정치적 선언 및 행동계획 이행 등이었음
-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등 15명)은 관련 의제(6a: 수요감축 및 관련조치, 6c: 자금세탁 방지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법공조 강화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안, 이행상황)에 관한 발언은 물론 국제합성마약 감시프로그램(Global SMART Programme) 공여국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공조체계 구축에 기여하기도 하였음

4. 제36차 아 · 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주관으로 2012. 10. 30. ~ 11. 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강력부장 등 10명)은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간 진행에 참여함은 물론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통한 한국 검찰의 대외 협력 활동을 소개하기도 함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95 광문

제7절 국제 수사공조 사례

●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첫 범죄인 인수(2003. 5. 22. 서울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우○○은 2002. 1.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3kg을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10여회에 걸쳐 중국산 필로폰 수십 kg(약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

–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2002. 6. 6.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범죄인 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 2003. 3. 20.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우○○을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 수사 후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서울지검에 추방형식 인도 제의

• 2003. 4. 22. 중국 공안부 관계자에 정식인도 이행 촉구

• 2003. 5. 19. 중국 공안당국의 범죄인 인도 수락의사 확인

• 2003. 5. 22. 중국 심양시 소재 심양국제공항에서 서울지검 마약수사관 2명이 신병을 인수 받아 귀국하여 5. 23. 구속영장 발부받아 집행

• 국내에서 필로폰의 밀제조사범들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제조한 후 국내와 제 3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그 전에는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이 경우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마약사범들의 도피처는 더 이상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줌

● 미국 마약청(DEA) 등 범죄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2003. 6. 29. 서울지검)

– 사건개요

• 2003. 6. 29.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 레이브 파티 현장에서 한국인 대학생 곽○○ 등 3명과 미군 9명을 MDMA 밀매 · 투약 혐의로 각 검거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96 광문

-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내사하여 혐의자들을 확인한 후 2003. 6. 29. 미국 마약청(DEA),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미공군 방첩수사대(OSI) 등과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 내국인 3명은 국내에서 신병처리하고, 미군 9명은 행정협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미 헌병대에 신병 인계
  - 향후 DEA, CID, OSI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협의

● 인천공항을 경유하려한 아편 밀수사범 공조수사(2003. 12. 5. 인천지검)

- 사건개요

  - 2003. 12. 5. 인천공항에서 태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경유,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던 미국인의 수화물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 9.88kg을 발견하고, 피의자 ○○○ ○○○○ (79.11.3.생, 미국인) 외 4명을 검거토록 하고, 아편 20kg을 압수토록 공조

- 공조사항

  - 2003. 12. 4. 19:30경 대한항공으로부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항공과 협조하여 위 가방의 주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가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미국 마약청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조 요청
  - 미국 마약청이 애틀란타에서 운반자 3명과 인수책 2명 등 5명을 검거함과 동시에 아편 20kg을 압수하는 개가를 올림

●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여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04. 8. 30. 수원지검)

- 사건개요

  -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마약 밀매단과 연계하여 중국 훈춘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경유, 속초항을 통해 필로폰 약 3kg을 밀수,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 밀수조직 속칭 '배사장파' 총책 배○○(남, 51세) 등 17명을 적발하여 이중 10명을 구속기소, 2명 불구속, 5명 지명수배

    ※ 필로폰 122g 압수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97 광문

- 공조사항

  - 필로폰 소지혐의로 구속된 장○○(천안 송악파 부두목)로부터 중국내 조선족 필로폰 공급조직과 밀수 총책 배○○에 대한 정보 입수(2004. 5.경)
  - 필로폰 밀수가 기존의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이 아닌 속초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속초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중국 조선족 보따리상들을 중심으로 2004. 5. 경부터 집중적으로 내사착수
  - 2004. 7. 25. 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연변주 공안구 내 간수소'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 입수
  - 2004. 7. 27. 외교통상부 동북아 2과를 통해 위 정보내용을 확인
  - 2004. 7. 27. 경찰청 외사3과,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인터폴에 배○○의 범행내용, 체포영장 발부사실, 지명수배된 사실 등을 통보하고 추방요구
  - 2004. 8. 27. 중국 인터폴(북경대사관, 경찰청 외사3과 경유)로부터 배○○에 대한 추방 계획 통보 받음
  - 2004. 8. 28. 10:50경 연길발 CA143편으로 국내로 추방
  - 2004. 8. 28. 14:10경 인천공항 도착 후 체포

● 한 · 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4. 5. 6.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프○○ ○○(61세, 중국계 미국인)은 2002. 2. 27. 홍콩 소재 첵락콕 공항에서 황○○(중국인)을 교사하여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662g을 국내에 밀반입

- 공조사항

  - 서울중앙지검은 한 · 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신병인도를 요청 후 미국 측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 통보
  - 2004. 5. 2. 수사관 2명 출국 후 LA 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신병 인수

● 캐나다인 관련 국제마약류 밀반입사건(2005. 2.~ 7. 수원지검)

– 사건개요

• 2005. 2. 8.과 같은 달 10. 캐나다에서 밀수된 필로폰 3kg 중 1,900g과 엑스터시 8,832정을 국내 보관책인 최○○과 주○○으로부터 각 압수하고, 이 압수물들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수조직(한국계)이 일본 야쿠자에게 전달할 물건이었음을 확인하여, 캐나다 마약밀수 조직원인 에○○○(밀수총책), 소○○(운반책관리), 최○○(운반책관리)과 운반책인 황○○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캐나다 경찰 및 일본 검찰과 공조 수사

– 공조사항

• 2005. 6.경 주 홍콩 캐나다 경찰 연락관과 위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 위한 회의

• 캐나다에서 수사 중인 코카인 밀수사건 수사기록 사본 송부의뢰, 마약밀수 배후인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의 개입여부, ·캐나다 거주 마약밀수사범 최○○, 소○○의 추방문제 등 논의

• 일본에 검거되어 조사 중에 있던 한국인 마약운반책인 강○○과 이○○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을 송부 받는 등 수사 진행상황 통보확인

● 한 · 중 · 괌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6. 8. 23.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다음 같은 달 23.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필로폰 약 530g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 공조사항

• 세관, 국정원 등 국내 유관기관 및 미국 마약청(DEA)과 공조하여 국내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괌 현지 마약 밀매사범까지 검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착수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공범 검거를 위하여 통과시킨 다음 같은 달 23. 인천공항에서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30g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괌으로 출국하는 운반자로부터 위 필로폰을 수거하여 압수

• 운반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검찰 마약수사관, 세관 및 국정원 등 3명이 괌 현지까지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299 광문

동행토록 한 후 괌 현지 밀매조직과 접선을 위해 대기하던 공범을 미국 마약청(DEA)으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고, 국내에 있는 피의자 및 관련 공범 검거

● 홍콩 · 한국 · 일본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7. 11. 9. 부산지검)

– 사건개요

•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3대 패밀리 중의 하나인 '이나가와카이'의 이○ ○○○○(야쿠자 중간보스)와 오○ ○○○○(야쿠자 중간보스, 필로폰 가공전문 기술자)이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 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필로폰 약 615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밀수입 하고, 같은 해 11. 10. 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전량 압수

– 공조사항

• 세관과 공조하여 일본 '동경세관 국제정보센터'로부터 본건 피의자 '이○ ○○○○'가 국내로 자주 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들 관련 마약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외 움직임을 포착한 후, 서울 소재 호텔에 묵고 있던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채 출국하기 직전 검거

●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8. 9. 10.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오○○○ ○○(41세, 나이지리아인)는 2002. 5. 1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 사이에 내국인 여성 10명 등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코카인 약 33kg 및 대마 약 40kg을 페루, 태국, 가이아나에서 한국,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영국으로 밀수입 및 판매목적으로 소지

– 공조사항

• 2002.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폴에 지명수배 의뢰

• 2003. 1. 10. 프○○의 조직원인 공범 우도우 아이케이 등 3명 구속기소

• 2003. 2. 27. 프랑스 리옹 소재 인터폴본부 사무총국에서 수배서 발행, 배포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300 광문

- 2003. 9. 25. 서울지검 주최로 프○○를 검거하기 위한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회의
- 2003. 10. 초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프○○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경찰청 인터폴을 통하여 독일 인터폴에 검거 요청
- 2003. 10. 21. 인터폴,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프랭크 검거
- 2004. 2. 16. 인도재판을 심리한 독일 헤센주 지방정부에서 한국과 함께 인도요청을 한 덴마크로 인도 결정하여 신병을 덴마크로 송환
- 2004. 5. 21. 덴마크 질란트시 소재 아루후스구치소에서 재판 대기 도중 탈옥, 중국으로 잠입
- 2007.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 2007. 2. 14. 중국 선양시에서 중국 공안당국 프○○ 체포
- 2007. 9. 28. 중국 선양시 소재 고급인민법원 대한민국으로 '인도조건 부합' 판결
- 2008. 4. 23.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비준
- 2008. 9. 10. 법무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 5명이 중국 요녕성 선양시 타오시엔 국제공항에서 신병인수
- 2008. 9.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 피의자 프○○구속기소
-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2억원 선고

● 헤로인 원료물질 무수초산 10.64톤 압수(2009. 8. 17.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박○○는(32세, 한국인)은 파키스탄인 2명과 공모, 2009. 2. 13.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섬유로 위장하여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고, 2009. 8. 17. 다시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10.64톤을 섬유로 위장하여 중국해운 소속 외항선에 선적하여 밀수출하려 함(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수출 예정이었음)
- 2009. 2. 13. 박○○는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20리터들이 용기 250개로 수출용 원단박스로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파키스탄 카라치항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301 광문

카불로 밀수출함

- 2009. 4. 피의자 박○○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인들을 만나 무수초산 10톤을 3억원에 밀수출할 것을 합의
- 2009. 8. 17. 인천항에서 중국해운(주) 소속 외항선 'XIANG TAI' 호에 선적하여 이란 반다르 압바스항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밀수출 시도

– 공조 사항

- 본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세관, 미국 마약청 한국지부, 파키스탄 마약수사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여 무수초산 밀수출을 차단하였음

●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 관련 루마니아인 밀수사건(2010. 8. 5. 인천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0. 7. 하순경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원으로부터 5,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운반책으로 포섭되었음
- 이후 피의자는 루마니아인 친구 3명과 함께 가나에 입국하여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
- 최근 약 1년간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음
- 위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은 일본으로 직접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일본세관, 경찰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단속되자 이번에는 다시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하여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공조사항

- 가나에서 대기 중인 루마니아인들이 추가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지 여부를 공항세관과 공조하여 감시 중이며 본건 수사과정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세관, 미국 마약청 한국지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여 나이지리아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302 광문

필로폰 밀수 조직 및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추적 수사 중임

● 국제공조수사로 필로폰 1kg 밀수 시도한 동남아시아 마약밀수조직 적발(2010. 11. 27. 인천지검)

– 사건개요

• 2010. 11. 26. 미국 마약수사청(DEA)으로부터 싱가포르인 1명이 마약을 소지한 채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첩보 입수

• 2010. 11. 27. 인천공항세관 출국장 검사대에서 필로폰 약 1킬로그램을 영양갱 및 비누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려고 한 싱가포르인 2명 및 부산 광장 호텔에 투숙중인 다른 싱가포르인 1명 검거

• 2010. 12. 14. 피고인들 3명 모두 구속 기소(다른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밀수조직을 국내에서 적발한 최초 사례로서, 위 마약밀수조직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직접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경우 검색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까다로운 검색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활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위 동남아 마약밀수조직은 보안검색 관련 인적 · 물적 장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로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철저히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원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공조사항

• 2010. 11. 26. 미국 마약수사청(DEA)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즉시, 인천공항세관과 협조하여 공항 탑승객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신속한 국내, 국제공조수사로 2010. 11. 27. 국내에 들어온 동남아시아 마약밀수조직의 조직원들 3명을 전원 검거하는 성과를 거둠 또한 미국 DEA 및 인터폴과 공조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 필로폰 공급총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실시하고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계속 추적 수사 중임

● 멕시코發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11. 5. 6.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303 광문

- 피의자는 미국 LA 한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국제 마약거래 등 일삼는 범죄조직인 LGKK단의 전 조직원이었음
- 피의자는 2009. 12. ~ 2010. 5. 사이에 멕시코에서 국제특송화물 혹은 국제통상우편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 총 287.39g을 국내로 밀수함
- 그리고 2009. 11. ~ 2010. 1. 국제전화로 국내 하수인 이용, 필로폰 0.7g 1회 매도, 0.7g 1회 교부함

– 공조사항

- 2010. 1. 9. 미국 마약청(DEA)에서 대검 마약과에 공조수사 요청(인터폴 적색수배)
- 피의자는 2010. 6. 29. 멕시코에서 검거되었으나 이민국 수용소의 문을 부수고 탈주함
- 2011. 4. 21. 피의자가 멕시코 경찰에 출석 후 멕시코 이민국에 수용되자, 멕시코 인터폴에 신병인수 요청
- 2011. 5. 4. 신병인수단(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 2명, 국제형사과 직원 1명)이 일본경찰 협조를 받아 경유지인 일본 내 우리 국적기에서 체포영장 집행
- 한국 검찰, 미국 DEA, 인터폴, 멕시코 이민국 등 각국 기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마약밀수를 일삼는 국제마약범죄 사범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 구속한 사안임

● 한 · 브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한국인 마약운반책 이용사범 신병인수(2011. 5. 27.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04. 10. 30.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운반책으로 하여금 프랑스로 코카인 37kg 운반하도록 하여 마약 소지
- 피의자는 2005. 3. 5. 남미 페루에서 운반책으로 하여금 스페인으로 코카인 11.5kg 운반 준비토록 하여 마약 소지

– 공조사항

- 2005. 8. 5. 인터폴에 적색수배 등재하여 2009. 7. 22. 브라질 경찰이 브라질에서 검거
- 2009. 8. 20.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2011. 2. 10. 범죄인 인도결정받음

• 2011. 5. 25. 브라질 내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범죄인 인도받아 체포영장 집행

● 홍콩으로부터 동남아 국제마약밀수조직원의 신병 인수, 구속(2011. 12. 1. 인천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싱가포르 국적)는 다른 피의자 3명(싱가포르 국적으로 2010. 12. 14. 모두 구속)과 공모하여 2010. 11. 27.경 인천공항세관 출국장 검사대에서 필로폰 약 1킬로그램을 가방에 넣고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려고 한 혐의

• 2010. 12. 14. 인터폴에 적색수배 등재

– 공조사항

• 2011. 2. 10.경 홍콩 정부로부터 피의자가 홍콩으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긴급 인도구속 청구 후, 2011. 3. 29.경 홍콩 정부에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 2011. 10. 3.경 홍콩 경찰에서 피의자 체포, 2011.12. 1. 홍콩 책랍콕 국제공항에 이륙대기 중인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국내로 호송하여 조사한 후, 같은 달 3. 구속영장 집행

●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필로폰 544.9g 밀수책 검거(2012. 2. 10. 인천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1. 11. 6.경 필로폰 544.9g이 은닉된 전기프라이팬을 운반책에게 건네주면서 한국으로의 밀반입을 지시하였으나 운반책이 중국 청도 유순공항에서 중국세관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구속됨

– 공조사항

• 2011. 11. 11. 중국세관에서 인천본부(항만)세관에 운반책의 구속사실을 통보하고, 인천본부세관에서 다시 인천지검에 이를 통보하여 국제공조수사 착수

• 2011. 12. 중순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측 조사자료(운반책의 심문기록, 현장 CCTV사진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확보

• 2012. 1. 10.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 8. 피의자를 내연녀의 집 앞에서 검거하여 구속함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305 광문

●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3kg 운반 지시한 한국인 마약운반사건 적발(2012. 9. 7.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는 마약을 운반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운반책으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3kg을 운반하도록 지시

- 공조사항

  • 2011. 5. 14.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운반책 체포

  • 2012. 6.경 일본 법무성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 및 재판기록을 확보하여 필로폰 운반을 지시한 피의자의 신원확인과 위치추적 실시

  • 2012. 8. 23. 피의자 체포 및 구속

  • 일본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필로폰 운반을 지시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캐나다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정보를 미국 DEA 서울지부를 통해 캐나다 수사당국에 제공, 캐나다 현지에서 관련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265-306 제4장 2013.9.11 2:51 PM 페이지306 광문